

'57일 고수온' 에 고흥 양식어가 80억원 피해

152가구 전복·굴·가리비 등 폐사... 고흥군 조사 진행 중 어종별 최대 5000만원 지원... 공영민 군수 "지원에 최선"

고흥군은 올해 57일간 지속한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어가 152가구가 80억원의 피해를 겪었다고 17일 밝혔다.

고흥지역 양식 어가의 고수온 피해는 유형별로 보면 전복 66가구·517만8000마리, 굴 70가구·105만4000줄, 가리비 9가구·211줄, 어류 7가구·123만8000마리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수온 피해 금액은 2021년 33억원(102가구)에서 올해 80억원(152가구)로, 2년 새 142.4% 뛰었다. 지난해에는 고흥지역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가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고흥에서는 어류 36가구, 전복 244가구, 갑각류(새우) 36가구, 기타 조개류(새고

막·굴) 532가구 등 모두 848가구가 3980ha 규모 양식 어업을 하고 있다.

고흥 해역에서는 지난 7월28일 득랑만-여자만 고수온 주의보 발령이 시작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고수온 경보가 확대 발령됐다.

올해 고수온 특보는 지난달 22일까지 57일간 지속했다. 2년 전인 2021년 고수온 특보 기간은 42일(7월15일-8월26일)로 올해보다 15일 짧았다.

올해 고수온 양식 피해는 고흥과 여수, 장흥, 완도, 진도, 신안 등 전남 6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흥군은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와 오는 19

일 합동조사를 한 뒤 피해 원인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복구비를 산정하고, 전남도·해양수산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피해 복구비 지원이 결정되면 양식 어가는 어종별 최대 5000만원(보상비 3500만원-용자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고흥의 주요 굴 생산지인 포두면 취도마을을 찾아 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고흥군은 올해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해 사업비 3억3683만원을 들여 액화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을 양식 어가에 지원해왔다.

공영민 군수는 "올해 57일간 지속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고수온 손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iu@kwangju.co.kr】



공영민(오른쪽) 고흥군수가 최근 포두면 취도마을의 한 굴 양식 어가를 찾아 지난달까지 이어진 고수온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고흥군 제공>

광양시, 물빛공원에 2만㎡ 18홀 파크골프장 만든다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지 무상 제공... 시, 골프장 운영·관리



정인화(왼쪽) 광양시장과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최근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광양항 동측배후부지에 있는 물빛공원에 약 2만㎡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광양시는 최근 시청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광양시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은 현재 1곳으로, 광양읍 동천에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광양시는 파크골프장의 조성·운영·유지 관리 등을 한다.

광양시는 이번 동부권 추가 조성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진월면 1곳, 광양읍 동천 1곳 등을 조성해 모두 4곳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옥순 광양시 체육과장은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동호인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거점 지역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여순 사건 75주기 인문행사

순천문화재단과 18~20일 조례호수공원서

여순 10·19 사건 75주기를 맞아 순천시와 순천문화재단이 18일부터 20일까지 인문행사를 연다.

'여순 10·19사건주간 인문행사'는 사흘간 순천 조례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는 '기억의 빛·치유의 빛·평화의 빛'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첫날에는 여순 사건 75주기 전야제 공식행사를 연다.

피아니스트 박상욱과 첼리스트 이호찬이 '캔들라이트 콘서트 위드 클래식' 무대에 오른다. 창작 음악극 '강인한 꽃, 뱀'도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여순 사건의 아픔을 다룬 영화 '동백'을 상영하며 평화 인권교육을 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순천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으로 다양한 예술인과 관객이 함께하는 '평화콘서트'가 열린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cf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순 10·19사건주간 인문행사를 위해 문화와 예술의 향연의 장을 마련한 만큼 유가족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지역민이 위로로 건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비수기 30% 할인

군민·다자녀 가구 대상

보성군이 제암산자연휴양림 이용료를 군민을 대상으로 비수기(9월1일-다음 해 6월30일)에는 30% 할인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달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암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할인 대상자는 보성군에 살거나, 19세 미만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다.

9월1일부터 다음 해 6월30일까지 주중(월-목)이라면 사용료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160ha 펼쳐진 숲속에서 야영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산림에 56개의 숙박시설과 치유센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갑판길이 있다.

해마다 30만여 명이 찾는 국내 대표 휴양지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18 한국관광의 별'에 뽑힌 뒤 '5·6월에 가볼 만한 곳', '8월 걷기 좋은 길', '2019 코리아유니크베뉴 30선', '2023 전남도 유니크베뉴' 등에 선정됐다.

휴양림 안에 있는 치유센터는 문화부·관광공사가 올해까지 3회 연속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뽑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이 군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주고 산림 생태 문화 체험의 기회를 넓히고자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가을철 지리산 야생동물과 거리 두세요

지리산국립공원, 동물 보호·감염병 예방 캠페인

국립공원공단 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가 가을철 야생동물 보호와 질병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거리 두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리산 전남사무소에 따르면 구례군보건의료원과 함께 천은사 상생의길 탐방로 일원에서 야생동물 매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을 목적으로 '야생동물 거리 두기'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가을철 단풍 탐방객의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설치류, 야생 진드기 등과 접촉 시 신중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쓰쓰가무시증 등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특히 진드기는 가을철 개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와 구례군 보건의료원, 자원활동가들은 천은사 상생의길을 지나가는 산행객들을 대상으로 진드기, 설치류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는 체형 부스, 야생동물 거리 두기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위험성을 알렸다.

차수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거리 두기의 주요 내용은 다람쥐 등 야생동물과 접촉 금지, 야생 뱀뱀 등의 접촉 예방을 위한 셋길 출입 금지, 반려동물 감염 예방을 위한 동반 산행 금지, 진드기 등 기피제 사용하기 등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지리산 탐방 중 혹시 마주치는 야생동물도 접촉하지 않는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기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10월호

2023년 9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國樂

가을, 국악의 향연 속으로

- 변신하는 국악, 더 신명난다
- 진도에 가면, 국악이 좋다!
- 국악의 잠재력이 폭발하다

예향 초대석

맑은 사람을 위한 책의 집' 운영, 괴테 연구자

전영애

"인간은, 지향(志向)이 있는 한 방황한다"

특별기획 - 新전남관광지도 ⑤

미식관광의 메카로 떠오른 전남

특별기획 -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⑤

104위 전국체육대회의 스포츠와 문화예술 어우러지는 '문화 체전'

화제의 지역축제-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둘러보고 가을꽃도 만끽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 ④

대인동, 버스터미널과 대인시장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⑧

'원폭의 아버지' 오펜하이머 폭탄의 시대 선사하다

멋과 맛 함께

진도타워 세방낙조 웰빙섬길

집도 웰빙길 | 명랑해전의 현장 돌돌묵, 진도타워 해넘이 감동, 세방·금치사 전망대 | 보석 같은 조도군도 '굿모닝진도' 토시오 전복장·콘플레이크 | 카페 '하이진도' 하루에 세끼' 명인이 키우는 건강쌀·흑미차·숙차

기획 화보

202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23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 ① 프롤로그

아트투어리즘 국내의 성공 도시 관광객 부르는 매력 탐색

밋과 맛 함께

진도타워 세방낙조 웰빙섬길

집도 웰빙길 | 명랑해전의 현장 돌돌묵, 진도타워 해넘이 감동, 세방·금치사 전망대 | 보석 같은 조도군도 '굿모닝진도' 토시오 전복장·콘플레이크 | 카페 '하이진도' 하루에 세끼' 명인이 키우는 건강쌀·흑미차·숙차